

태권도원, '디지털 마이스' 시스템 도입

태권도진흥재단, LED 모니터·음향장비·화상회의 시스템 등 갖춰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태권도원 내래홀에 '디지털 마이스' 시스템을 도입,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마이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회의 기반을 구축해 마이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3년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태권도원 내래홀에 LED 모니터와 음향장비,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갖춘 디지털 마이스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태권도원 내래홀에는 가로 5.4미터, 세로 3미터 크기에, 최대 8K에 달하는 고해상도 LED 모니터가 설치되어 정밀하고 깊이 있는 사진 및 영상 노출까지도 가능하다. 또한, 별도의 86인치 모니터를 전자철판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 각종 컨퍼런스 등에서 발표자 및 사회자가 전자철판에 필기를 하면 LED모니터에 표기가 되는 등 행사 진행 완성도와 편의성도 높였다. 이와 함께 고성능 PC를 기반으로 한 화상회의 시스템까지 갖추며 안정적인 온라인 회의를 지원하는 등 완벽한 디지털 마이스 환경을 구축했다.

특히, 유지 관리 용이성을 위해 가로 5.4미터,



태권도원 내래홀에서 디지털 마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한국어성의 전화 정책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세로 3미터의 LED 모니터를 일체형 방식이 아닌 81개로 분할·구성해 장애 및 고장 발생 시 해당 부분의 모니터만 교체하면 즉각적인 마이스 행사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2024 한국어성의전화 정책토론회'와 '2024년도 체육지도자 실기·구술 시험' 등에 디지털 마이스 시스템을 운영하며 태권도 관련 주요 온라인 회의나 포럼 등을 비롯해 다양한 국내의 행사를 개최·유지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세계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에 디지털 마이스 공간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디지털 마이스 공간 도입을 계기로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한 마이스 행사 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컨템포러리 감성농악 사이닝 고창' 눈길

9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 고창농악 진수 느낄 수 있어

고창농악보존회가 지난 6월 동리국악당에서 '컨템포러리 감성농악 사이닝 고창' 첫 선을 보인 이후 "농악의 진수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는 후기가 줄을 잇고 있다.

이번 공연은 기획단계부터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2024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사업'에 선정돼 더욱 짜임새 있고, 수준높은 작품이 탄생했다.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의 무형유산인 고창농악의 다양한 굿(당산굿, 문굿, 풍장굿, 매굿, 판굿 등)을 비디오 아트와 결합했다. 보이는 고창, 느끼는 고창, 빛나는 고창 3단계 구조를 통해 관객에게 오감 만족 공연을 전달하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컨템포러리 감성농악 사이닝 고창'은 9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총 10회 동리국악당에서 공연이 펼쳐지며, 8월 31일(토)은 꽃대립축제로 대체된다.



이번 상설공연의 관람료는 1만원이며 티켓 예매 방법 및 할인 정보 등 공연과 관련한 사항은 고창농악보존회(063-562-2044)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하다.

심덕희 고창군수는 "기존의 전통적인 농악을 비디오 아트와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농악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고창군민 및 관광객들이 고창농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김경아 개인전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오는 21일까지 서울관에서 김경아 개인전 '테오리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가에 따르면 2001년 첫 개인전에서 조각보와 기와장 등 전통적인 기하학적 형상에 착안해 역동적인 시각적 화면 구성을 시도했다. 자주 기법에서 영감을 얻은 점묘법과 함께 강한 마티에르를 나타내는 형식 실험은 단조롭지만 더욱 깊이 있는 화면으로 전환됐다. 마치 한옥의 창을 닮은, 기하학적 형상 사이의 공간을 창조해낸 독창적인 그리드(Grid) 화면으로 변화를 맞이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구축된 예술세계를 2015년 경부터 '테오리아(Theoria)'로 명명해왔다. 이는 인간의 영혼이 편견이 없는 순수한 상태에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조하는 정신을 일컫는 그리스어다. 작가는 스스로를 관조하는 동시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주 만물의 근원과 자연, 인간의 존재성을 표현하기 위해 '빛과 공간'을 가시화하는 작업을 '테오리아'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경아 작가는 "'테오리아' 작업은 자아의 발견과 내면 성정에 관한 탐구를 담고 있다.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며,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자 했다"며 "작품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울림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리뷰단 품생품사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12~19일 8일간 '2024 리뷰단 품생품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리뷰단 품생품사는 전북문화관광플랫폼 '폼'을 '생'생하게 '사'용하는 리뷰단이라는 의미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사진 부분은 블로그 홍보 콘텐츠 작성 경험이 있는 자, 영상 부분은 숏폼 제작이 가능한 자로 네이버 폼을 통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을 통해 총 5팀을 선정한다. 사진과 영상 콘텐츠 제작에 능숙하고,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참가자를 우대 모집한다.

주요 활동은 전북문화관광통합플랫폼의 커뮤니티 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 작성, 플랫폼 모니터링, 신규 아이디어 제안, 활동 보고서 작성 등이다. 7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이뤄진다.

모집 요강 및 지원 방법은 전북문화관광통합플랫폼 누리집(www.jbct.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 '바다속 버블왕국 아쿠아 쇼 시즌2' 공연

김제시(시장 정성주)문화예술회관은 7월 문화가 있는 날 '바다속 버블왕국 아쿠아 쇼 시즌2'가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비눗방울이 만들어 내는 환상적인 무대, 바다속 버블 이야기 '아쿠아쇼'는 깊은 바닷속 심해를 주제로 미술과 버블, 발룬을 통해 바다의 소중함과 바다 속 환경오염을 정화하는 교육적 의미를 담고 있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매직

버블 퍼포먼스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버블쇼, 매직 발룬쇼, 메가버블쇼, 샌드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오감을 자극하는 공연으로 온 가족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 가득한 공연이 될 예정이다.

관람권 예매는 오는 16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11일 5층 대회의실에서 '202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 상품 선정을 기념하는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7점 선정

도 문화관광재단, 100선 상품 선정 기념 시상식 가져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11일 5층 대회의실에서 '202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 상품 선정을 기념하는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전북의 역사·문화·자연환경 등 전북자치도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요소를 반영한 관광기념품을 선정하고자 기획했다.

총 55개의 상품을 접수, 1차 전문가 심물심사와 2차 온라인 대중심사를 거쳐 대중성과 상품성을 갖춘 관광기념품 7점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상품으로는 △전주한옥마을 오목대 자개 풍경(아리광방, 강해경), △왕(王)의 도시, 미(味)각의도시 전주 스마트 북(더생경, 배운성), △1초갯(한민속사랑, 변길동), △전주의 사계 굿 소주잔(조혜립), △전주 명소 사계

절 향기 제품(취향연못, 박은지), △전주명소 행운가득, 자개키링(보물단지, 정민혜), △풍납문소리(안목 스토어, 이나눔) 등 총 7점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경운 대표이사가 참석해 수상자를 격려했다.

선정된 상품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인증마크 부여, △관광기념품 100선관 입점, △생산 장려금 지급, △홍보마케팅 지원, △관광기념품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선정된 관광기념품이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브랜드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발굴·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관광마케팅팀(063-230-74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